

가야 김해

Hi!
김해!



Contents

Inside 김해 01	Enjoy 13
지도	유쾌한 도시 김해 낙동강레일파크, 김해천문대,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지혜의바다
History 02	Place 16
왕도의 숨결을 느끼다 수로왕릉, 수릉원, 대성동 고분군, 봉황동 유적, 수로왕비릉	요즘 김해 봉황대길 봉황1935, 낙도맨션, 카페은교, 개나리주택, 하라식당
Museum 04	Style 18
시대를 보는 눈, 박물관 투어 국립김해박물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클레이아크미술관	장유·올하 거리 취향저격카페 에스키스, 마리봉포레, 카페필로, 더 세하
Healing 06	Taste 20
일상의 쉼표, 슬로시티 김해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은하사, 진례 대나무 숲, 분산성, 진영역철도박물관, 금란다원, 봉하마을	김해의 맛, 맛, 맛 한우를 가게 남광식당, 대동할매국수, 구강촌, 만리향, 불암정
Special 12	
계곡 따라 걷는 치유의 길, 대청계곡 누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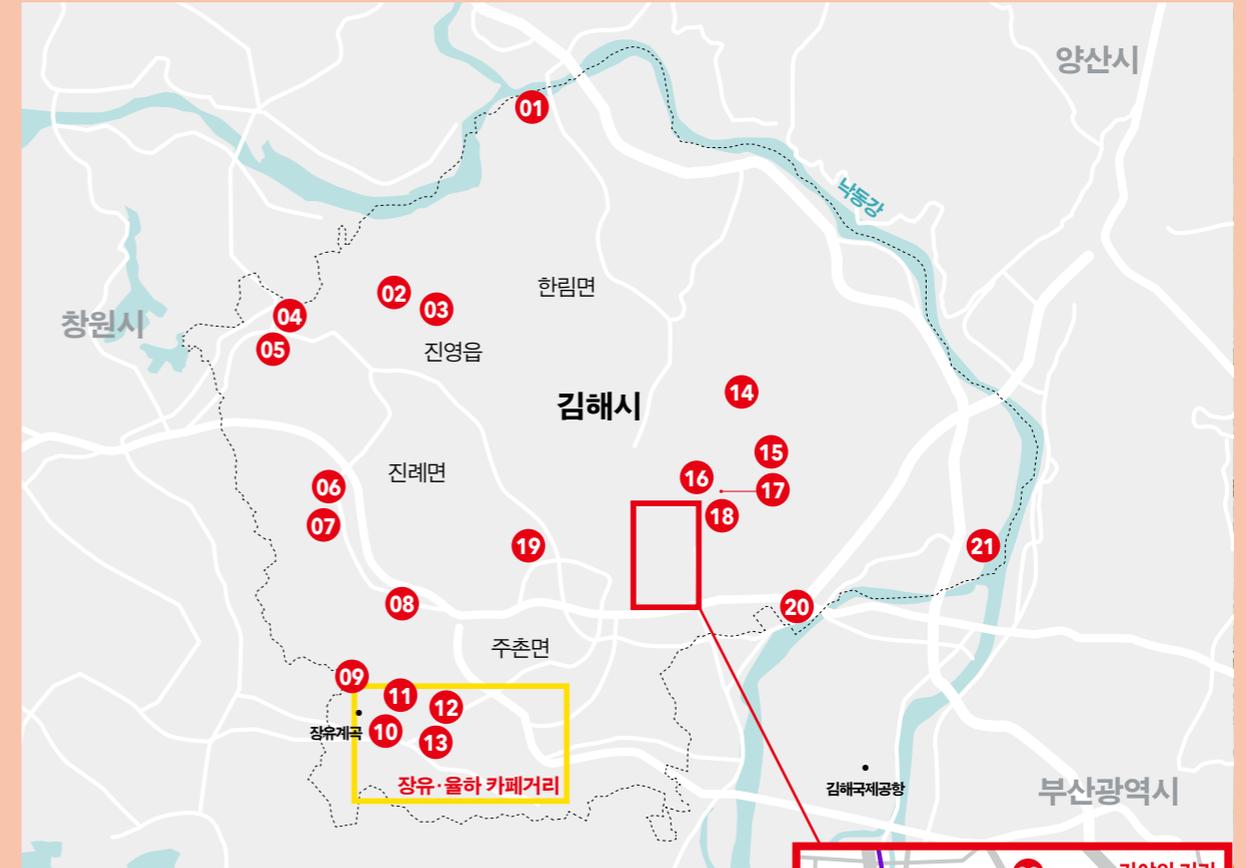
Hi! 김해!

발행처 김해시 관광과 발행일 2020년 11월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전화 055-330-4441 홈페이지 www.gimhae.go.kr
기획·제작 (주)로드에이비씨미디어(AB-ROAD)

※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여행 매거진 <AB-ROAD>에 게재된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 무단전재나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 책에 있는 정보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nside 김해

김해는 찬란했던 금관가야의 유적보다 더욱 빛나는 보석같은 스포트로 가득하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김해의 모든 것.



- | | | |
|--------------|-------------|-------------|
| 01 김해낙동강레일파크 | 18 카페필로 | 25 대성동고분박물관 |
| 02 봉하마을 | 19 금란다원 | 26 수릉원 |
| 03 화포천습지생태공원 | 20 은하사 | 27 수로왕릉 |
| 04 진영역철도박물관 | 21 김해천문대 | 28 남광식당 |
| 05 구강촌 | 22 김해가야테마파크 | 29 만리향 |
| 06 클레이아크미술관 | 23 분산성 | 30 봉황동 유적 |
| 07 김해분청도자박물관 | 24 김해지혜의바다 | 31 카페은교 |
| 08 진례 대나무숲 | 25 불암정 | 32 개나리주택 |
| 09 장유사 | 26 대동할매국수 | 33 봉황1935 |
| 10 더세하 | 27 수로왕비릉 | 34 낙도맨션 |
| 11 마리봉포레 | 28 국립김해박물관 | 35 하라식당 |
| 12 에스키스 | 29 김해대성동고분군 | |



가야의 거리는 국립김해박물관부터 봉황대까지 해변천을 따라 이어진 2.1km의 테마 거리다. 도심을 관통하는 가야의 거리에 금관가야 시대의 주요 유적지가 몰려 있어 김해를 여행한다면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이다.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 수로왕릉

가락국(금관가야)을 창건한 초대 왕이자 김해 김씨의 시조 수로왕(首露王)의 능이다. 가야왕도가 있던 김해의 상징적인 문화유적으로 1만8000평의 웅장한 규모와 균형미 넘치는 건축물이 인상적이다.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 선조 13년(1580)에 대규모 정비가 이뤄져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다만 임진왜란 당시 도굴당해 안타깝게도 유물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왕릉 곳곳에는 태양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김수로왕이 하늘에서 내려온 태양의 아들임을 의미하기도 하고, 수로왕비의 나라인 인도 아요타국을 상징하기도 한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가락로93번길 26
전화 055-330-7313 **운영시간** 09:00~20: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korean.visitkorea.or.kr



수로왕과 허왕후가 노닐던 정원 수릉원

수로왕과 허왕후가 거닐었을 법한 아늑한 분위기의 테마 정원. 수로왕릉과 가야왕들의 묘역인 대성동 고분군 사이에 위치해 가볍게 산책하듯 들르기 좋다. 수릉원은 현재 김해 시민들의 생태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소나무를 비롯해 각종 나무가 심어져 있는 힐링 숲과 넓은 잔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다. 수릉원은 수로왕과 허왕후를 기념하는 각각 다른 분위기로 조성된 것이 큰 특징이다. 동쪽은 남성의 이미지를 살려 구실잣밥나무와 가시나무, 상수리나무 등 곧게 뻗은 나무를 주로 심었고, 서쪽은 야생감, 돌배, 살구, 개복숭아 등 열매를 맺는 유실수를 위주로 식재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살렸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1-1 **운영시간** 24시간
전화 055-326-5577



역사를 걷는 느긋한 산책길 대성동 고분군

가야시대의 무덤이 몰려 있는 대성동 고분군은 도심 속 평화로운 휴식처로 변모했다. 길이 약 300m, 높이 20m 정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고분을 따라 과거와 현대의 경계를 오가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볼거리는 크게 없는 편이지만, 탁 트인 전망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부작사부작 걷기 좋은 곳.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이 켜지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는 가야의 유물만큼이나 유명하다. 하늘과 맞닿은 언덕 위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팽나무가 바로 그것. SNS에서는 일명 '왕따 나무'로 불리며 김해 최고의 포토 스폿으로 꼽힌다. 해질 무렵, 노을과 함께 환상적인 실루엣이 담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 사실 언제 찾아도 각각의 분위기가 천차만별이라 꼭 한번 둘러보길 권한다. 대성동 고분에는 금관가야시대의 다양한 계급층의 무덤이 몰려 있다. 때문에 발굴되는 유물도 꽤 다양한 것이 특징. 최고급 가야 유물부터 각종 철제 기구와 크고 작은 도자기가 대량으로 출토됐다. 4~5세기에 번영했던 금관가야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은 바로 앞 대성동 고분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26 **운영시간** 24시간 **홈페이지** www.gimhae.go.kr



가야의 일상을 엿보다 봉황동 유적

가야시대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 청동기시대 말부터 초기 철기시대의 유물이 다수 발굴된 곳으로, 2001년 김해패총과 금관가야의 집단 취락지인 봉황대를 합쳐 봉황동 유적으로 확대 지정됐다. 주로 붉은 토기와 도기, 손칼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유물이 다수 발굴됐고,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농작 도구나 불에 탄 쌀 등이 발견되면서 고대 농경을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가야시대 주거지와 고상가옥, 망루를 재현한 다양한 건축물도 볼 수 있다. 산책길을 따라 가볍게 한 바퀴 돌면 대부분의 유적을 살펴볼 수 있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58 **전화** 055-330-3549 **홈페이지** www.gimhae.go.kr

최초의 국제결혼, 허황옥 수로왕비릉

가락국 시조인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의 능이다. 인도 아요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옥은 16세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수로왕의 왕비가 됐다. 무덤 앞에는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의 석재가 남아 있다. 훗날 원호대사가 이때 가져온 파사석으로 남해 보리암의 석탑을 만들었다고도 전해진다. 전문 해설사가 전하는 수로왕과 허황후의 러브 스토리를 들을 수도 있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120 **전화** 055-330-3948
운영시간 08:00~20:00 **홈페이지** www.tour.gimhae.go.kr



시대를 보는 눈 박물관 투어

김해에는 온몸으로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다. 김해를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

Museum



가야사를 한눈에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의 숨결을 가장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박물관으로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김해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검은색 철과 벽돌로 이뤄진 투박한 외관은 '철의 왕국' 가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거대한 규모답게 박물관에는 전시품도 많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고대 국가에 비해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가야의 특성상 유물과 유적을 통해 역사를 복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립김해박물관은 여타 박물관과 달리 유독 고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 박물관의 유물을 보면 가야의 역사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사 문화부터 청동기와 철기를 지나 신라·백제와 패권을 다투던 가야의 황금기를 차례로 살펴볼 수 있다. 국립김해박물관은 김해 경전철박물관역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가야의 거리나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대성동 고분군과도 가까워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북부동 가야의길 190 전화 055-320-6800 운영시간 화~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21:00, 일요일 09:00~19:00, 월요일 휴무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gimhae.museum.go.kr



내 손으로 만든 도자기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가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김해 도자기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 전시관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김해 도자기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 도예가들의 전시회, 저렴한 가격에 분청도자기를 판매하는 공방이 마련돼 있다. 특히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도자 체험이 가장 인기 프로그램. 물레를 돌려 도자기를 만들거나, 간단한 액세서리, 머그컵, 작은 인형 등을 만들 수 있다. 도자기의 경우 최소 1시간 전에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간단한 체험은 현장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다. 바로 옆에 위치한 클레이아크미술관도 함께 둘러보면 좋을 듯.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360 전화 055-345-6037 운영시간 화~일요일 10:00~17:00, 월요일 휴무 홈페이지 www.doja.gimhae.go.kr



쉽게 배우는 가야의 역사 대성동고분박물관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굴한 가야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 2003년 개관한 대성동고분박물관은 국립김해박물관과 함께 가야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조사가 시작된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현재까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북부동 가야의길 126 전화 055-330-6881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 월요일 휴무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ds.gimha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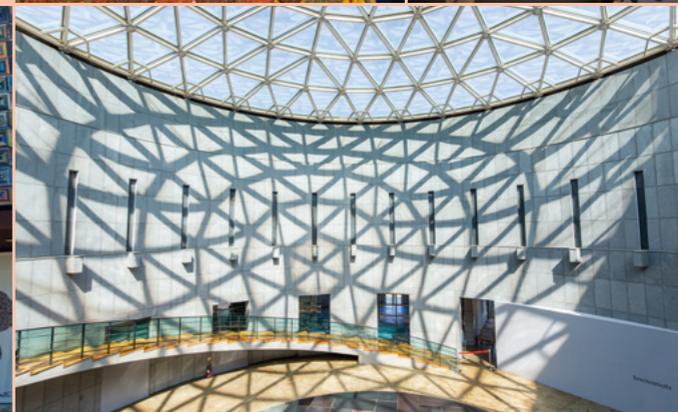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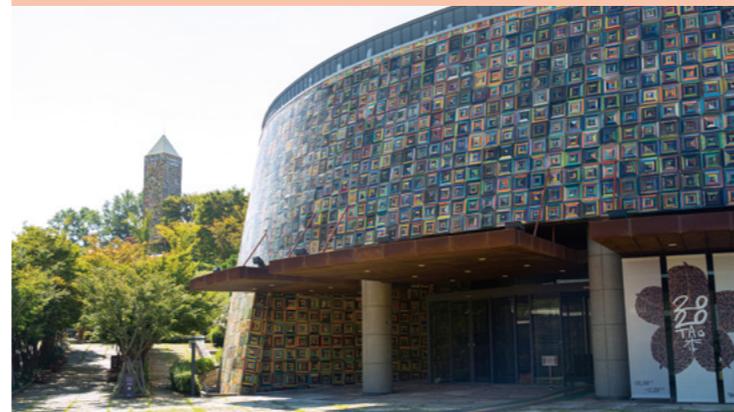


#EDITOR'S PICK

건축과 도자의 세련된 만남 클레이아크미술관

흙(Clay)과 건축(Architecture)의 조화를 의미하는 합성어로 '클레이아크(Clayarch)'라는 이름이 붙었다. 클레이아크미술관에서는 흙을 소재로 한 독특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단순히 흙이라는 '재료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관점에서 도자와 건축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 감각적인 인테리어는 물론, 예상을 뛰어넘는 독특한 작품 세계와 과감한 시도를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클레이아크미술관은 크게 메인 전시 공간인 돔하우스와 상설전·특별전·기획전 등이 진행되는 큐빅하우스, 작가들이 머물며 창작활동을 하는 레지던스 시설과 도자체험관, 야외 전시관으로 나뉜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51 전화 055-340-7000 운영시간 화~일요일 10:00~18:00, 월요일 휴무 입장료 전시 2000원, 체험 1만원 내외 홈페이지 www.clayarch.org



지난 2018년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김해시는 자연과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전하며 여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바삐 달려온 걸음을 잠시 멈추고, 김해 곳곳을 느릿느릿 걸어보자.



'천의 얼굴'을 가진 생명의 땅 화포천습지생태공원

화포천습지생태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배후 습지로 멸종위기 생물을 포함해 800종이 넘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습지는 사계절 내내 생생한 자연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여름에는 해오라기나 물총새, 순백의 깃털을 가진 백로와 황로 등이 이곳을 찾는다. 겨울철은 그야말로 새들의 천국이다. 가을로 접어들어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시베리아나 몽골 등지에서 날아든 수많은 겨울 철새가 이곳으로 몰려든다. 저어새나 기러기, 두루미, 청둥오리 등 수많은 철새들의 화려한 군무를 볼 수 있다. 공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모습이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동트는 새벽녘 화포천습지의 모습은 가히 환상적이다. 산 너머로 노오란 태양이 살며시 고개를 들면 습지 사이로 자욱하게 물안개가 끼는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하다. 새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이슬을 머금은 풀잎마다 따스한 햇살이 스며든다. 구석구석 이어진 데크를 따라 걸으며 자연의 신비함을 오감으로 느껴보자.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 전화 055-342-9834 홈페이지 www.hwapo.gimhae.go.kr



고즈넉한 분위기의 고찰 은하사

'신의 물고기'를 뜻하는 은하사는 신어산 자락에 세워진 가락국 초기의 고찰. 허왕후의 고향인 인도 아유타국과 관련된 '쌍어' 문양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창건 시기는 불분명하나 허왕후의 오빠인 장유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사찰에서 출토된 토기를 바탕으로 삼국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임진왜란 당시 사찰이 모두 불타 1800년대에 다시 재건했다. 아쉽게도 현재 모습은 대부분 조선 후기 양식이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882 전화 055-337-0101



초록빛 힐링 진례 대나무숲

초록빛 상쾌함이 물씬 풍기는 김해의 숨은 명소. 진례 대나무 숲은 면적 7만 6033m²에 이르는 거대한 대나무 숲이다. 드라마 <더킹-영원의 군주>와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의 촬영 장소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알음알음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여유롭게 힐링하기에 제격이다.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이름난 곳이 아니다 보니 이정표도 없고 올라가는 길이나 주차하기에도 불편하지만, 왠지 모르게 숨겨진 보물을 찾은 듯 묘한 만족감이 든다. 여타 대나무 숲과는 달리 지대가 높아 전망도 좋고 바람도 훨씬 상쾌하다. 이곳은 사유지라 지도에 따로 나오지 않으니 '죽순농원'을 검색하면 된다. 죽순농원에서는 백숙과 대동밥 등을 팔고 있는데, 굳이 식사를 하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하니 편하게 방문해보자.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978-92



왕후의 붉은 노을 분산성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용된 가야의 산성. 남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는 김해평야, 서쪽으로는 김해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분산 정상을 중심으로 923m 성곽이 둘러싸고 있는데, 돌담을 따라 걷기 좋은 길이 조성돼 있다. 탁 트인 전망도 아름답고 오르기도 편해 김해 사람들의 산책로로 애용되고 있다. 분산성은 임진왜란 때 허물어졌던 성곽을 흥선대원군이 다시 축조한 것으로, 현재는 성벽의 대부분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깔끔하다. 곳곳에 인스타그램 인기 포토존이 있으며, 특히 해질 무렵 붉게 물드는 노을이 가히 환상적이다. 이는 '왕후의 노을'로 불리며 김해에서 전해오는 '금릉팔경' 중 하나로 꼽힌다. 허왕후가 이곳에 올라 노을을 바라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기 위해선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올라 사진을 찍고 왕후의 노을과 야경까지 한 번에 감상하는 것이 좋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내비게이션에 가야테마파크를 검색해 올라가는 것이 팁.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신964 전화 055-330-3925
홈페이지 www.gimhae.go.kr



레트로 감성 포토스팟 진영역철도박물관

운행을 멈춘 폐역이 철도박물관으로 탈바꿈했다. 엄밀히 말하면 '인생샷 맛집'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다. 내부에는 진영역의 역사와 간단한 체험시설이 마련돼 있다. 진영역은 대한제국 말기인 1905년 러일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의 군수 물자를 나르기 위한 군용철도로 개통됐다. 이후 2010년 12월 철도복선화로 105년 만에 폐역이 됐지만 오랜 세월만큼이나 진영역에는 많은 이야기와 애환이 서려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운수사업을 시작한 진영역은 당시 일본인 직원만 14명이 있었을 만큼 김해 지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경전선(옛 마산선)이 개통되면서 김해평야의 쌀과 진영 단감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중국 베이징까지 수출됐다고 한다. 김해를 지나는 모든 기차가 이곳에 정차했고 자연스레 진영역 일대는 김해 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현재까지도 진영역 주변은 당시의 모습이 어렵잖아 남아 있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45-1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 월요일 휴무 전화 055-344-0799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 따라 봉하마을

故 노무현 대통령이 타고 자란 자그마한 시골 마을. 곳곳에 휘날리는 노란색 바람개비와 드넓게 펼쳐진 황금빛 들판, 나무에 매달린 먹음직스러운 단감까지, 마을 전체에 따스한 분위기가 감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와 퇴임 후 살았던 대통령의 집, 조출한 묘역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작은 마을에는 아직까지 그를 추모하기 위해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봉하마을은 복잡스럽지 않고 평온하다. 흙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야생화 사이를 뚝뚝 걸어보고, 조용히 새소리·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행복한 기분이 가득해지는 것. 봉하마을 주변으로는 봉화산 생태숲길과 화포천 습지길, 봉하들판 논둑길 등 자연 생태를 살펴볼 수 있는 걷기길이 많다. 대통령 귀향 이후 주변 생태를 되살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현재는 수많은 동식물이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자연거를 빌려 황금빛 평야를 달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비롯해 주변 생태 환경과 각종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 건립 중이다. 2021년 5월 오픈 예정.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29 전화 055-346-0660 홈페이지 www.bongha.knowhow.or.kr



맛과 멋이 있는 장군찻집 금란다원

허왕후가 수로왕에게 시집을 때 가지고 왔다고 전해지는 장군차. 몇 년 전부터 김해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장군차는 고려 총렬왕이 김해 금강곡의 차나무를 '장군'이라 칭한 데서 유래했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국제명차품평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올해의 명차'로 11년 연속 선정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신어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찻집 금란다원에서는 제대로 된 장군차를 맛볼 수 있다. 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맛'과 '멋'이 있는 찻집. 숲 속에 있는 찻집답게 상쾌한 바람과 숲 내음이 물씬하고, 편백나무로 지은 내부에는 나무 향과 차 향이 그윽하다.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야외 테이블에서 한적하게 티타임을 즐겨도 좋을 듯하다. 금란다원에서는 장군차 중에서도 가장 좋은 등급의 찻잎을 사용한다. 어린 잎 특유의 감칠맛과 달착지근하고 시원한 향이 특징. 녹차 특유의 쌉싸름한 뒷맛이 전혀 없이 깔끔한 것이 인상적이다. 특히 주인장이 직접 만든 수제 디저트도 놓치지 말 것. 보기에 예쁘지만 한 입 베어 물면 그야말로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랄까.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장척로 150 전화 055-323-7230 운영시간 11:00~23:00 홈페이지 www.teahousegeumran.modoo.at

#걷고 싶은 길

계곡 따라 걷는 치유의길

대청계곡 누리길

청명한 가을,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청계곡을 따라 마련된 데크를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셔보자.
어느새 기분 좋은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테니.

코스 인공폭포 & 물레방아 → 대청 도시숲 → 장유대청계곡 → 장유폭포 → 장유사
●거리 약 3.5km ●소요시간 1시간

Tip
장유사까지는 생각보다
길이 가파르고 험한 편이라
장유폭포까지만 걷는 것을 추천.
도로가 상당히 포장이
잘되어 있어 장유사까지는
차를 타고 오르면
금방이다.



1 인공폭포 & 물레방아

대청계곡 누리길의 시작점.
여름철이 되면 높이 7m에
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보지만 해도 시원해지는 느
낌이다. 물레방아에는 곡물
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탈곡
기와 맷돌 등 11점의 농기구
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현
재는 작동이 중단된 상태지
만 노란 단풍을 배경으로 물
레방아를 보는 것만으로 정
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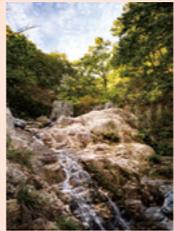
3 장유대청계곡

불모산 산자락을 따라 이어진
6km 계곡으로 울창한 숲과 투
명한 물줄기로 유명하다. 여름
에는 싱그러움 푸름이 있고 가
을이면 알록달록한 단풍을 볼
수 있다.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
이 피서를 오는 곳이기도 하다.
계곡을 따라 나무 데크가 조성
되어 산책하기 좋고 곳곳에 쉼
터가 마련돼 있어 명상하기에
도 그만이다.



5 장유사

장유대청계곡을 따라 1시간 남짓 올라
가면 장유사가 나타난다. 차를 타면 10
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첩첩산중에 들어온
듯하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루러진
경건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며, 사찰 정
면으로 펼쳐진 탁 트인 전망도 좋다.



2 대청 도시숲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자그마한 대
나무 숲이지만 조용히 삼림욕을 즐
기기에 제격이다. 숲길 곳곳에 휴
식 공간도 잘 마련돼 있고, 휴과 나
무, 꽃과 곤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4 장유폭포

누리길초입에 있는 인공폭포와는 달리, 자연적인 폭포. 장
유대청계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규모는 작지만
암벽 사이로 힘차게 떨어지는 물줄
기를 보고 있으면 정신까지 맑아진
다. 비가 온 뒤에는 물보라를 일으
키며 더욱 힘차게 흐른다고 하니 제
법 기대가 된다. 폭포 위로 올라다
보이는 파란 하늘도, 웅덩이로 떨어
지는 물소리도 상쾌하기 그지없다.



유쾌한도시 김해

Enjoy

상공에서 짜릿한 액티비티를 즐기고 자연 속을
달리며 별을 보거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도
좋다. 김해를 즐기는 유쾌한 방법 4가지.



철교 위를 달리는 낙동강레일파크

낙동강레일파크는 폐선 된 경전선 철도를 활용해 조성됐다. 시원한 바람
을 맞으며 낙동강 위를 횡단하는 레일바이크와 김해시 특산물인 산딸기와
와인을 테마로 한 와인동굴,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철교 전망대로 구
성돼 있다. 레일바이크는 지상 구간 0.5km, 철교 구간 1km를 왕복하는
총 3km 코스로, 강 위를 가로지르는 레일바이크는 김해가 유일하다. 꽃이
만개한 지상 코스를 지나면 7m 높이의 아찔한 낙동강 철교가 모습을 드러
낸다. 15m 높이의 철교 전망대에선 철교 위를 올라 시원스레 펼쳐진 낙동
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해질 무렵에는 '왕의 노을'이라 불리는
낙동강변의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스폿으로 유명하다. 기차가
지나던 길이 500m 생림터널은 달콤한 향으로 가득한 와인 동굴이 됐다.
김해시의 특산물인 산딸기와 산딸기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산딸기
를 테마로 한 각종 시설이 아기자기하게 조성돼 있다. 길진 않지만 조명과
트릭아트를 이용한 독특한 전시 작품도 나름 볼 만하고, 한국 와인의 역사
와 품종에 대한 자료도 흥미롭다. 특히 유기농으로 재배한 산딸기 와인을
맛볼 수 있는데 맛은 물론 바분위기도 상당히 좋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654-4 전화 055-333-8359 운영시간 09:00~18:00
입장료 레일바이크 1만5000원(2인), 와인동굴 1000원 홈페이지 www.ghr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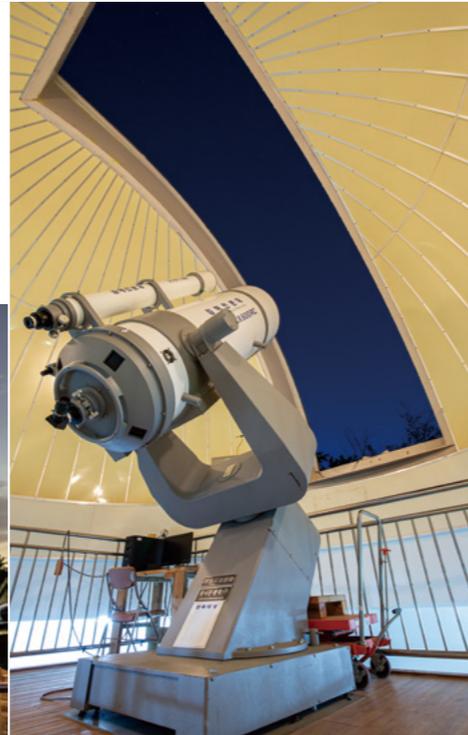




별 불일 있는 놀이터 김해천문대

분성산 정상에 위치한 김해천문대의 외관은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천문대는 크게 관측동과 전시동으로 나뉜다. 관측동에서는 2대의 거대한 천체망원경과 4대의 중형 망원경으로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으며 달은 물론 각종 행성과 성운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동에서는 별자리에 얽힌 재미있는 신화와 자료, 가상으로 별자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산2-3 전화 055-337-3785 운영시간 화~일요일 14:00~22:00, 월요일 휴무 홈페이지 www.ghast.or.kr



오감으로 느끼는 가야 김해가야테마파크

가야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느낄 수 있는 오감 체험형 테마파크. 테마파크는 크게 놀이·체험·전시 및 공연으로 나뉜다. 높이 22m에서 짜릿한 라이딩을 즐겨보고 싶다면 익사이팅 사이클이 제격. 테마파크를 좌우로 가로지르는 길이 500m 외줄 위에서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높이 15m의 사이팅 타워에는 각종 장애물을 통과하며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총 72가지 챌린지가 마련돼 있다. 가야의 왕궁을 재현한 거대한 공연장에서는 가야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페인츠 퍼포먼스를 비롯해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운명적인 러브스토리를 담은 뮤지컬, 빛과 조명을 활용한 3D 미디어쇼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가야왕궁 전시관에서는 수로왕과 허황옥의 일대기를 담은 전시를 볼 수 있고, 가야시대의 의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드라마 촬영을 체험해볼 수도 있다. 이밖에 직접 화로에서 철기를 주조하거나, 물레를 돌려가며 니만의 김해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활쏘기와 말타기 등 다양한 테마 체험도 즐길 수 있어 아이와 방문하기에도 제격. 테마파크 곳곳에 아름다운 가든과 캐릭터도 많아 사진 찍기에도 좋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가야테마길 161 전화 055-340-7900 운영시간 월~금 09:30~20:00, 토·일 09:30~22:00 홈페이지 www.gaya-park.com

NEW PLACE

책 속으로 풍덩 김해지혜의바다

2019년 12월에 완공된 김해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눈앞에 펼쳐지는 압도적인 책의 향연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김해 외곽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을 개조한 '김해지혜의바다'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총면적 3449㎡에 이르는 거대한 공간에 약 11만 권의 책이 가득 채워져 있다. 문학부터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일반 도서는 물론, 만화나 어린이·유아 도서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중앙에 있는 무대에서는 공연이나 강연, 북토크 등 각종 행사도 열린다. 클래식 연주부터 뮤지컬,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고, 작가와 소통하는 토크쇼가 열리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매월 다른 주제로 북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운영한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41번길 8 전화 055-330-9800 운영시간 09:00~18:00 홈페이지 www.gjhlb.gn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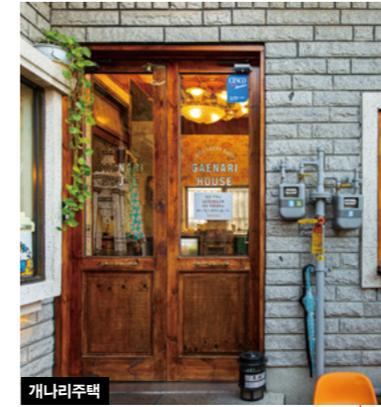
봉황1935



낙도맨션



카페은교



개나리주택



하라식당

수로왕을 주변 회현동부터 김해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봉황동까지 이어진 좁은 골목길. 2018년부터 감성 넘치는 카페와 공방, 음식점 등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꾸준히 들어서면서 김해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NEW

요즘 김해 봉황대길



봉황대길 1세대 카페

봉황1935

봉황대길 입구에 위치한 봉황 1935는 일제강점기 시절 가족을 개조한 감각적인 카페. 봉황대길을 대표하는 터줏대감으로 각 방마다 각기 다른 콘셉트로 꾸몄다. 일본식 다다미방을 비롯해 엔틱한 인테리어와 국적 불문의 이색적인 소품이 눈길을 끈다.

특히 각 룸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나뉘어 주변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쉬기 좋다. 커피 가격은 살짝 비싼 편이지만 주인장이 직접 발품 팔아 공수한 좋은 원두를 사용해 맛이 좋다. 봉황대길의 카페 중 가장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18-4 전화 055-329-1935 운영시간 11:00~23:00

조용한 사색의 공간 낙도맨션

빈티지한 분위기의 감성 카페로 간판조차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독특하게도 인원은 한 팀 당 3명까지만 가능하고,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는 노키즈존, 게다가 사진 찍는 것조차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특이한 카페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사색을 즐기는 공간'이길 바란다는 주인장의 바람처럼 낙도맨션은 잔잔히 시간을 보내기 좋다. 갖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만큼 커피 맛도 훌륭하다. 고소한 우유와 달달한 연유를 스팀해 만든 브랑치노가 낙도맨션의 시그너처 메뉴. 인테리어를 위해 주인장이 5개월간 사포질을 했을 만큼 벽지는 물론 의자나 테이블, 수저 하나에도 세심함이 느껴진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34 전화 055-311-9987 운영시간 수~일요일 12:00~19:00, 월·화요일 휴무



인스타그램 핫스팟 카페은교

커피를 주문하는 줄보다 사진 찍는 줄이 더 긴 아이러니한 카페다. 그만큼 인테리어가 예쁘다는 반증. 숲 속의 작은 산장에 온 듯한 담쟁이넝쿨과 우드톤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카페 입구에 있는 포토 스폿은 인증샷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 마치 해외여행을 온 듯 이국적인 풍경과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감성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 이곳은 스페셜티와 프렌치토스트가 유명하다. 스페셜티는 프랑스에서 유기농으로 기른 허브를 사용하고, 바게트 빵을 숙성시켜 바닐라시럽과 땅콩, 시나몬을 더한 프렌치토스트는 인기가 좋아 금방 다 팔린다니 주문을 서두를 것. 제철 재료로 만든 짭짤한 수제 파운드케이크도 인기 메뉴. 촉촉하고 많이 달지 않아서 커피랑 먹기 좋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18 5번지 전화 010-2926-3569 운영시간 11:00~21:00



빈티지한 밥상 개나리주택

할머니가 홀로 사시던 낡은 주택을 개조해 두 명의 젊은 청년이 식당을 차렸다. 샷포로 여행에서 먹은 카레탕에 감명받아 만들었다는 한국식 카레탕이 시그너처 메뉴. 오묘한 맛은 물론, 아스파라거스와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가지, 연근,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온갖 재료가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음식이 예뻐 수 있더니 신기할 따름이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봉황동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자 식당 이름도 개나리주택으로 지었다고. 어렸을 적 시골집에서 보던 알록달록한 꽃무늬 식탁보와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유리컵, 노란 가위와 분홍색 집게까지 모든 것이 촌스럽지만 이상하게 정감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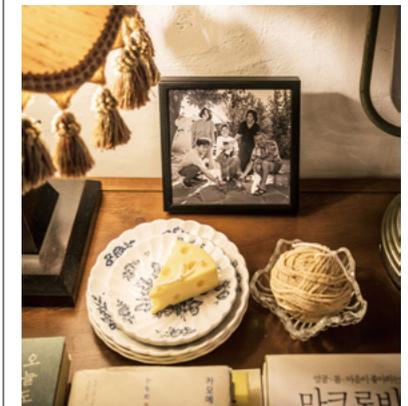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18-16 전화 055-339-7727 운영시간 11:30~20:30(Break Time 15:00~17:00)



항상 새로운 메뉴 하라식당

매일 메뉴가 바뀌는 작은 밥집. 좁은 쪽문 사이 지하 계단을 내려가면 하루에 두 가지 메뉴만을 선보이는 하라식당이 나타난다. 보통 제육볶음이나 닭다리스테이크, 돼지안심구이 덮밥 등 한식 위주 메뉴를 선보이지만, 가끔은 파스타도 파는 등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메뉴를 정한다고. 하라식당은 음악가 주인장과 화가 주인장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매장 곳곳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소품이 가득하다. 직접 그린 다양한 미술 작품으로 벽면을 장식하고 종종 공연을 열기도 한다고.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23-10 전화 055-338-4751 운영시간 12:00~22:00(Break Time 15:00~17:00)



장유·울하거리 취향저격 카페 4 CAFE

좀 더 색다른 카페를 찾는다면 장유·울하 카페거리가 제격이다. 루프톱 풀이 있는 카페부터 미술랭 셰프의 레스토랑, 홍차 향이 가득한 티 카페나 제주도가 떠오르는 한적한 시골 카페까지. 장유·울하 거리에서 찾은 취향저격 4색 카페.



1 에드워드권의 다이닝 공간 에스키스

미술랭 셰프 에드워드권이 운영하는 복합 다이닝 공간.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워 분위기 내기에도 좋고 사진을 찍기에도 제격이다. 1층에는 캐주얼 레스토랑 에디스키친, 2층에는 디저트 카페 아뜰리에엠, 3층에는 모던 한식 레스토랑인 엘리먼트츠가 위치해 있다. 모든 층이 큰 통유리로 이뤄져 햇살도 잘 들고 개방감이 뛰어나다. 베이커리 카페인 아뜰리에엠은 디저트 하나하나에도 고급스러움이 묻어난다. 모든 빵에 유산균을 첨가해 장시간 발효시키는 저온숙성법으로 반죽하고,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 빵과 어우러지는 크림과 앙금을 모두 자체 생산하고 있다. 아뜰리에엠의 시그니처 메뉴는 프랑수아식 디저트인 크림브뤼레 라떼로 차가운 커스터드크림에 유리처럼 얇고 파삭한 캐러멜을 토핑하는데, 겉은 달고 속은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계곡길 46 전화 055-338-4200 운영시간 11:00-22:00 홈페이지 www.esquisse.kr



2 홍차의 진한 유혹 마리봉포레

수많은 홍차의 맛과 향을 느껴볼 수 있는 홍차 전문 카페. 외관에서부터 동양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마리봉포레는 입구에서부터 진한 홍차 향이 코끝을 자극한다. 차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 주인장이 직접 영국과 스리랑카 등 전 세계 홍차를 직접 시향 후 메뉴를 선택했다고 한다. 마리봉포레에서는 무려 70여 종의 홍차를 맛볼 수 있다. 찾아가기 들어 있는 메뉴판 케이스를 열어 찾아가고 싶은 홍차의 향을 일일이 맡아보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메뉴판에 초심자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영국, 스리랑카, 중국, 인도, 싱가포르, 프랑스 등 각국의 대표 차를 추천 메뉴로 표시해놓았다. 또 간단한 마키로부터 홍차이스크림까지 홍차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동서양의 분위기가 공존하는 차분한 인테리어와 소품도 인상적이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계곡길 전화 055-312-2222 운영시간 10:00-22:00



3 고향집 같은 아늑함 카페필로

사방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와 담쟁이넝쿨에 둘러싸인 카페필로. 나즈막한 담벼락, 아담한 주황색 지붕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큰 도로에서 살며시 동네 길로 들어서면 오래된 시골집을 개조한 빈티지한 카페가 나타난다. 기존 주택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특징인데, 과하지 않게 꾸민 인테리어가 어딘가 익숙하고 편안하다. 내부로 들어서면 중앙에 큰 마당이 나타나고 음료를 주문해 각 방으로 들어가면 된다. 방이 나뉘어 있어 프라이빗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각 방마다 분위기도 서로 다르니 한번씩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777 전화 055-313-5210 운영시간 10:30-22:00



4 대청계곡이 한눈에 더 세하

사방으로 펼쳐진 대청계곡의 풍경과 야외 풀장이 매력적인 카페 더 세하. 세련된 인테리어와 넓은 마당 그리고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루프톱 풀까지, 인증샷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두루 갖췄다. 뷰 좋은 카페가 많기로 소문난 장유·울하 거리에서도 가장 핫한 곳이다. 한쪽 벽면이 모두 통유리라 햇살도 잘 들고 층고도 높아 전망이 좋다. 1층 잔디 마당에서 가볍게 피크닉을 즐겨도 좋고, 장유계곡의 가을을 만끽하기에도 그만이다. 주인장이 직접 만든 디저트와 함께 커피와 스페셜티를 피는데, 직접 향을 맡아보고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 의외로 커피보다 차를 주문하는 사람이 많다. 주말에는 사람이 몰려 자리가 없을 정도라 한적하게 휴식을 원하는 이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계곡길 257-39 전화 055-311-1633 운영시간 10:30-21:30





고소한 소곱창전골 남광식당

얼큰한 곱창전골과 낙·곱·새로 유명한 남광식당. 주인장 아주머니가 20대에 개업해 60대가 된 현재까지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 쓰던 두 자리 국번 전화번호가 적힌 허름한 간판에 내부 역시 낡았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고소한 소곱창전골에는 신선한 낙지와 새우도 듬뿍 들어간다. 텁텁하지 않고 짭짤한 매운 맛이 일품. 생선조림과 묵은지, 다시마쌈 등 밑반찬도 정갈하게 나오고, 친화력 넘치는 주인 아주머니의 친절함에 기분마저 좋아진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회현동 분성로 317번길 18
운영시간 11:00~22:00, 일요일 휴무 전화 055-336-7605

맛과 멋이 있는 김해의 맛맛맛

김해에서 30년 이상 대를 이어 운영해온 오래된 가게를 지칭하는 '한우물가게'. 단순히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 것을 넘어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 더욱 가치 있다. 김해를 대표하는 한우물가게 5.



푸짐한 구포국수 대동할매국수

1959년부터 1대 주인 주동금 할머니가 긴 세월 한결같이 '구포국수'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쫄깃한 면발에 부추와 채 썬 단무지, 김가루와 참깨가루 곱명을 수북이 올리고 진한 멸치국물을 부어 먹으면 된다. 여기에 청양초를 더하면 얼큰하고 푸짐한 할매국수가 완성된다. 아직까지도 주인 할머니가 주방에서 직접 곱명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감탄스럽기까지 하다. 부산 구포동의 이름을 딴 구포국수는 6·25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값도 싸고 맛도 좋아 인기를 얻게 됐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백중원의 3대 천왕>, <맛있는 녀석들> 등 미식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소개됐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45번길 8
전화 055-335-6439 운영시간 화~일요일 09:30~19:00, 월요일 휴무



마늘 '듬뿍' 연팔기 맛집 구강춘

1963년부터 화교가 3대째 운영하고 있는 중국 요리 전문점. 구강춘은 오랜 세월 현지인들 사이에서 최고 맛집으로 손꼽힌다. 중국식 닭요리인 연팔기와 간짜장이 대표 메뉴. 잘게 썬 닭고기에 간 마늘을 수북이 올리고 시큼한 특제 소스로 맛을 낸 연팔기는 드라클라도 울고 갈 소킹한 비주얼을 자랑한다. 진한 마늘 향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짭짤한 소스 덕에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 진영역철도박물관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함께 들르기 좋다. 음식점 벽면에 걸린 옛 흑백사진을 보니 얼마나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실감이 난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50
전화 055-343-2117 운영시간 12:00~21:00



한결같은 만두 맛 만리향

3대째 대를 이어온 김해 최초의 만두집. 다문화 거리 '종로길' 초입에 있는 만리향은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왔다. <생활의 달인>에 만두 장인으로도 출연한 주인장이 매일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두를 빚는다. 만두피가 얇아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것이 특징. 자극적이거나 독특한 맛은 없지만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맛이다. 1인 2판 하는 손님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다. 게다가 테이블에서 먹고도 몇 판씩 포장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양도 많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오랫동안 김해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이유를 알 것 같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분성로 335번길 4
전화 055-332-8060 운영시간 화~일요일 11:00~19:00, 월요일 휴무



푸짐한 장어구이 한상 불암정

예부터 장어타운이 자리 잡은 불암동 일대는 민물장어가 많이 잡혔는데, 고고고들하면서도 담백한 맛으로 경남 일대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불암정은 1976년부터 부산과 김해의 경계선인 선암다리 인근에서 운영해오다, 2008년 강변장어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대를 이어오고 있다. 갖은 양념에 고추장과 진간장, 꿀, 한약재를 넣고 10시간 이상 고아 만든 소스를 찜통에서 반쯤 익힌 장어에 고루 발라 불로 완전히 구워내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다. 함께 나오는 푸짐한 한상 차림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다.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229-33 전화 055-336-6463
운영시간 10:30~21:30



대동할매국수



구강춘



만리향



불암정



남광식당